

2023

아르헨티나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 지표	5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23년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6
나. 자원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	7
다. 농축산업 분야 성장세 유지	8
라. 건설·인프라 분야 투자 일부 지속	9
마.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9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20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0
나. 수출	22
다. 투자 진출	26
라. 프로젝트	28
마. 자원 개발	28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1
가. 교역	31
나. 투자	33
다. 협력 유망 분야	35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0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1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0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2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4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5

2023

아르헨티나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글로벌 경기 영향 및 대선 등의 영향으로 '23년 경제 제로 성장 전망

■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대선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아르헨티나 경기가 '21년부터 연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양정책, 억제되었던 소비 수요 회복,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었음
- '23년도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대선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 시행 등으로 아르헨티나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또한,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채권과 헤지펀드와의 합의를 위한 급격한 긴축 조치 가능성도 있어 소비 및 투자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나.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백만 명	43.5	43.9	44.4	44.8	45.2	45.6	46	46
명목GDP	십억 달러	557.2	642.5	523.9	447.0	385.9	486.9	607.3	591.8
1인당 명목GDP	달러	12,772	14,588	11,667	10,604	8,571	10,658	12,187	12,266
실질성장률	%	-2.1	2.8	-2.6	-2.0	-9.9	10.4	4.6	0.0
실업률	%	8.5	8.4	9.2	9.8	11.6	8.8	7.1	8.2
소비자물가 상승률	%	41.0	24.8	47.6	53.8	36.1	50.9	103.3	73.9
재정수지 (GDP 대비)	%	-5.8	-5.9	-4.9	-3.8	-8.4	-3.6	-4.5	-4.0
총수출	백만 달러	57,960	58,662	61,801	65,162	54,946	77,987	93,246	86,501
(對韓 수출)	"	833	612	406	865	894	1,824	1,790	-
총수입	"	64,101	64,109	62,544	46,928	40,315	59,291	81,656	78,564
(對韓 수입)	"	796	836	536	341	332	391	417	-
무역수지	백만 달러	4,416	-5,447	-743	18,234	14,631	18,696	11,590	7,937
경상수지	"	-15,105	-31,151	-27,084	-3,493	3,121	6,708	-3,395	-9,734
환율 (연평균)	ARS/US\$	14.76	16.56	28.09	50.23	70.51	94.99	130.69	231.90
해외 직접 투자	억 달러	1,787	1,155	1,911	1,539	1,294	1,363	-	-
외국인 직접 투자	억 달러	3,260	11,857	12,161	6,663	4,019	6,534	-	-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년은 전망치; 對韓 수출입 '22년 자료 9월 기준

자료: EIU('22.11.9. 기준 전망), IMF, UNCTAD, KITA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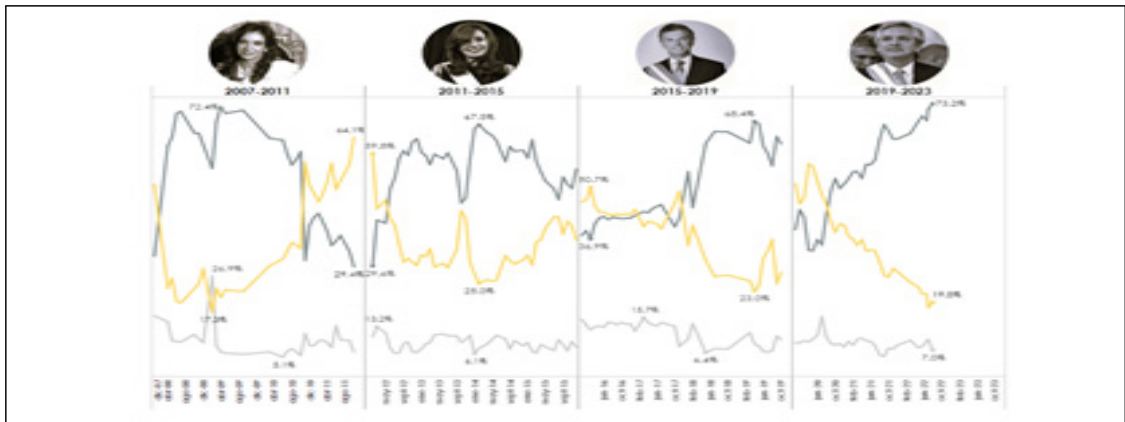
- ※ '23년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 ※ 전략광물 자원인 리튬 중심으로 자원 개발 투자 및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농축산업 수출 증가 및 성장세 유지
- ※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 및 온라인 유통망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가. '23년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 2023년 10월 22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실시

-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3년 12월 10일)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전망
 - 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으나,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및 경기 악화로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
 - 특히, 예비선거(PASO)가 실시되는 '23년 8월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12월까지의 정치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흡수할 전망
 - '23년 야당 집권 시 경제정책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재정 확충,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위해 긴축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음
- *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공공요금 동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할부 정책, 가계별 현금 지급 등

〈 주요 정치인 이미지 비교 〉



자료: Diagnostico Político 컨설턴트

나. 자원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

■ 전략 광물자원인 리튬 중심으로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지속될 전망

-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은 '20년 기준 904만 톤으로 세계 3위 수준
- 현재 17개의 리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리벤트 코퍼레이션(Livent Corporation; 프로젝트명 페닉스(Fenix))과 올캠/토요타/헴세(Allkem/Toyota/Jemse; 프로젝트명 올라로스(Olaroz)) 2개 회사가 수산화리튬 및 탄산리튬을 생산 중
- 현재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량은 약 4만 톤으로 개발 프로젝트들이 완료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
- 또한,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2개의 광산에서도 늘어나는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설 투자를 시행, 생산량 증가 예정

〈 리튬 주요국 생산량 및 매장량 현황 〉

(단위: %, 천 tn LCE)

국가	점유율	2020년 생산량	매장량
호주	49%	212.8	14,894
칠레	22%	95.7	45,745
중국	17%	74.5	5,319
아르헨티나	8%	37.9	9,043

자료: 아르헨티나 광업협회(CAEM)

〈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기업 현황 〉

프로젝트명	Mina Fenix	Salar Olaroz
생산 리튬 종류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탄산리튬
투자자	Livent	ALLKEM(Orocobre Ltd+Galaxy Lithium) Toyota Tsusho Corporation(25%) JEMSE(8.5%)
오퍼레이터	Minera del Altiplano	Sales de Jujuy S.A.
생산량(수출량)	22,500 LCE Tn	17,500 LCE Tn
수출국	중국(41%), 미국(41%), 유럽(15%)	중국(44%), 유럽(15%), 일본(15%), 러시아(10%)
증설 계획	투자액: 640백만 USD 2023년: 예상 생산량 28,500 LCE Tn 2024년: 예상 생산량 40,000 LCE Tn	투자액: 330백만 USD 2022년 상반기 부분 증설 완공, 2024년 하반기까지 최대 생산량 도달 목표

자료: 아르헨티나 광업협회(CAEM)

■ 우리 기업 포스코, 리튬 생산 프로젝트 본격화

- 한국 회사로는 포스코가 살타(Salta)주에서 염호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8.3억 달러(운전자금 포함)를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
- 최근 10.9억 달러 규모의 2단계 투자를 결정했으며, '24년 상반기 공장 완공 및 연간 2만 5천 톤(전기차 약 60만 대분)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계획

다. 농축산업 분야 성장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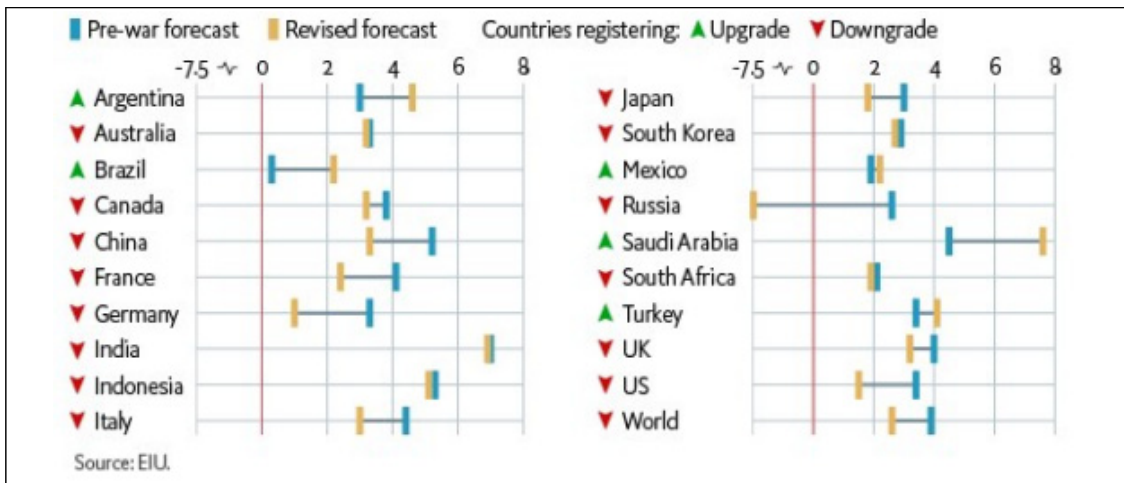
■ 대두 및 식물성 유지(乳脂) 등 주요 농작물 수출 증가 전망

- 아르헨티나는 전형적인 1차 산업 발달국으로 농산물, 농산가공품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1) 농산물 수출액 127.8억 달러, 식물성 유지 수출액 37.2억 달러
- 시카고 선물시장의 대두 가격은 2022년 다시 상승세를 기록, 아르헨티나의 1~7월 대두 공식 FOB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하며 수출 증가 기여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르헨티나 GDP 성장 기여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주요 원자재(석유, 가스, 비금속, 곡물 등) 공급 국가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원활한 수출이 불가능해진 점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에 호재로 작용
- 아르헨티나의 수출 구조상 농산물, 자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국제가격 상승은 수출 증가 및 GDP 성장에 기여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23년까지 국제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농축산업 분야는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 경제성장률('22) 전망 비교 〉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2.9.7. 기준 전망)

라. 건설·인프라 분야 투자 일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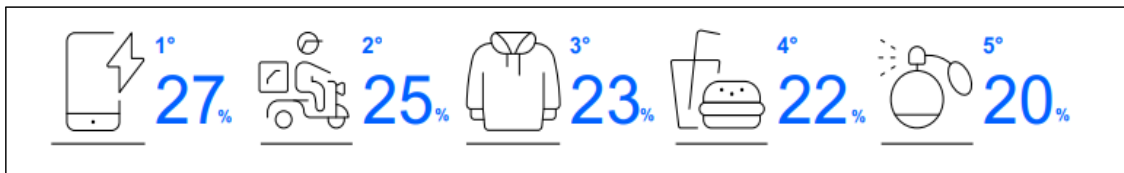
■ 천연가스관 프로젝트 발표

- 아르헨티나 정부는 네우켄(Neuquén)주 트라타옌(Tratayen)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살리켈로(Salliqueló; 부에노스아이레스市 남서쪽 약 470km) 및 산헤로니모(San Jerónimo; 부에노스아이레스市 북서쪽 약 350km)로 운송하는 연장 583km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가스관 프로젝트를 발표('22. 6월)
 - 동 프로젝트를 통해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주요 소비지역 및 가정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
 -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로젝트 총 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추산되며, 1단계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은 약 15억 달러임

마.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 전자상거래 산업 확대 지속

-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며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CACE)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73% 증가했으며, '25년까지 연 30%에 달하는 성장 기대
 - '22년 상반기 판매수(Ticket)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 중
-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91%가 최소 1번 이상 온라인 구입을 진행
 - 구매자 중 59%가 27~56세 사이이며,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핸드폰(27%), 음식(25%), 스포츠 의류(23%), 식료품(22%),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20%)으로 집계



자료: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CACE)

- 특히, 온라인 구매자가 증가하며 까르푸(Carrefour), 디아(Dia), 코토(Coto) 등 현지 대형 유통망에서 온라인 판매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온라인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3

아르헨티나 진출전략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 '23년 대선 승리 및 재집권을 위한 총력전 예상
- ※ (경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23년 제로 성장 전망
- ※ (산업) 지식 서비스, 자동차산업 주력 육성, 전자상거래·한류 관련 소비재 시장 성장
- ※ (정책) 수입 대체현지화 촉진 정책 추진, 외환 보유고 확충 위한 수입 규제 지속 전망

가. 정치 환경

■ 2023년 대통령 선거로 불확실성 확대 전망

■ 아르헨티나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세

- 현재 아르헨티나는 좌파 성향이 짙은 정당 프렌테 데 todos(Frente de Todos)가 집권 중으로, 전 정부인 중도우파 집권 당시 겪은 경기 악화로 인해 좌파가 재집권에 성공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로 '21년 경기가 잠시 반등했으나, 고질적 인플레이션 심화 및 경기 침체가 진행되며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태

〈 아르헨티나 정치 구조 〉

정부 형태	대통령제 (4년 연임제)
국가 원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Alberto Fernandez)
입법부	양원제 (상원 72석, 하원 257석)
주요 정당	Juntos por Cambio, Frente de Todos 등
정부 성향	좌파주의, 포퓰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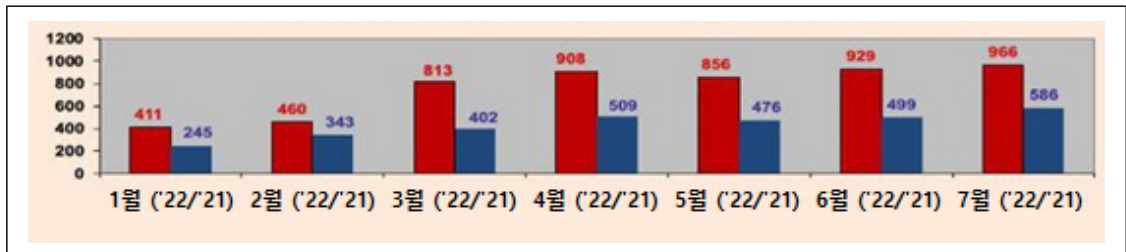
■ 각종 시위가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정 심화 추세

-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야기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21년 하반기~'22년 팬데믹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경기 침체 및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안 중 하나인 정부보조금 삭감 등의 반포폴리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지속적인 시위로 발현되며 집권 여당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22년 1~7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5,343건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22년 연간 총 시위 횟수가 사상 최대치인 10,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2022/2021년 시위 발생 건수 비교 〉

(단위: 수)



자료: Diagnostico Político 컨설팅사

■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기 침체 극복이 관건

-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경제부 장관 등 잦은 내각 교체로 대외적인 신뢰 손상 및 지지율 하락을 초래
- 집권 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경제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현지 대부분의 경제 전문 컨설팅 업체들은 집권 여당이 인플레이션 해소 및 경기 침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우파 연립인 훈토스 보르 엘 캄비오(Juntos Por el Cambio)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전망

■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집권 여당은 지지율 회복에 전력투구할 것

■ 아르헨티나 대선은 '23년 10월 진행 예정으로 현재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22년 9월 초 현지에서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우파인 훈토스 보르 엘 캄비오(Juntos Por el Cambio)당('15~'19년 집권)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집권 여당은 약 29%를 기록

* '22년 8월까지의 컨설팅 업체 조사 결과로 자료는 Dato World에서 제공

- 또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 하락하며, 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음

나. 경제 환경

■ 2023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제로 성장 전망

- '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11%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아르헨티나는 '21년, '22년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했으나 '23년에는 제로 성장 전망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2년 상반기까지 '23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으나, 아르헨티나 내 정치적인 이슈(정부 주요 인사들의 교체, '23년 대선 등) 및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해 전망치를 0%로 하향 조정
 - '22년 경제성장률은 4.6%로 전망되고 있으며, '23년 1분기부터 경기 하락세가 시작되어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기에 진입한 후 '23년 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22~2026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연평균 2.5% 성장 예상
 - 현재 진행 중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농업, 에너지, 광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전망
 - 반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취약한 국가 재정, 경제 통제 정책, 장기 자금 조달 애로 및 기업 활동 규제 등은 아르헨티나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트릴 것으로 보임
 - 또한, 만성적 인플레이션 지속과 함께 극빈층 증가로 인해 치안·안전 문제가 악화되며, 사회 불안이 가중될 전망

〈 아르헨티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단위: %)

경제 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10.4	4.6	0.0	2.2	2.8	3.2
실업률(평균)	8.8	7.1	8.2	7.8	7.2	7.0
소비자물가 상승률(연말기준; end-period)	50.9	103.3	73.9	48.5	34.5	26.8
금리(평균)	35.6	55.3	65.5	54.1	41.4	32.9
경상수지(GDP 대비)	1.4	-0.6	-1.6	-1.8	-1.8	-1.9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2026년은 전망치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2.11.9. 기준 전망)

■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 경제의 최대 이슈

- 국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시기에 시행된 가격 통제와 공식/비공식 환율 간 격차 확대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채무 재조정 협상에 따라 긴축정책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보조금 인하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이 국민의 원성을 살 수 있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

- 특히, '23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긴축정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시카고 선물시장의 대두 가격은 올해 다시 상승세를 기록, 아르헨티나의 1~7월 대두의 공식 FOB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

■ 민간 소비의 경우 '22년 전망치는 8.8%로 양호한 편이나 '23년에는 -1.4%로 이전에 비해 소비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긴축정책 영향으로 '23년 민간 소비 성장세 둔화 전망

〈 아르헨티나 연도별 민간 소비 증감률 〉

(단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민간 소비	10.0	8.8	-1.4	4.1	2.7	4.0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2026년은 전망치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2.11.9. 기준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및 환율 전망

■ '23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IPC)는 하락세를 나타내며 60.0%, 연말 기준 명목(공식)환율은 1달러당 269.9페소(+62.1%)를 기록할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 전망대로 진행된다면 연평균 실질환율이 약하게 평가절상(-1.5%)되며, 경쟁력 있는 상태로 마무리되는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

- 이후 명목환율은 2025년 33%로 전망되는 인플레이션율에 맞춰갈 전망

〈 아르헨티나 물가 및 환율 전망 〉

(단위: %, 페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IPC(소비자물가지수)	50.9	95.0	60.0	44.0	33.0
환율(1USD 기준)	101.9	166.5	269.9	381.2	497.1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다. 산업 환경

■ 소비자/완성품 등 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현지 생산 기반 확대 추진

- 농목축업 등 1차 산업이 발달한 아르헨티나는 소비자 생산 기반이 취약
 - 현지 생산 품목(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철강 등)의 경우 자국 생산기업 보호를 위해 높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사전 수입 승인 품목으로 분류
 - 아르헨티나 정부는 2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지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을 더 신속히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 중

■ 전자상거래(e-Commerce) 산업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현황
 - 전자상거래 형태는 B2C(79%), C2C(16%)와 B2B(8%)로 구성, B2C 형태가 압도적이며, 전자상거래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와 리테일(Retail)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음
 - *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는 2008년 최대 경쟁업체인 데레마떼(DEREMATE)사를 인수 합병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
 - *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중남미 18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방법
 - 아르헨티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도 해외 공급업체가 직접 벤더로 등록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Cross-Border Trade, 이하 CBT)를 아르헨티나 및 칠레에 론칭할 예정임. 다만, 현지 정부 당국의 수입 규제, 세금 및 물류비용 등을 고려 시 일부 경쟁력 있는 소비재에 한해서 CBT를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현재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온라인 플랫폼은 중남미 18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나, 해외 공급업체가 벤더로 참가할 수 있는 CBT는 브라질, 멕시코 및 콜롬비아에 한정

■ K-Culture 관련 소비자 산업

- 최근 아르헨티나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 중남미 전체 트렌드 중 하나로 K-Culture*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
 - 한국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현지인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한국 식품 등 문화 관련 제품에 관심 표명
 - * 한국문화원(Centro Cultural Coreano), 한인회 행사 등을 통해 K-Pop, K-Movie, K-Food, K-Beauty 등 한국 문화가 빠른 속도로 현지에 확산 중

- '22년 10월 기준 아르헨티나 총 수입액에서 일반 소비재가 약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인구 약 4,600만 명의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4대 소비시장 중 하나로 한국 문화 연관 상품은 현지 경기 회복 시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임
 - 특히, 높은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 뉴 트렌드 제품들은 현지 시장 진출 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 2021년 동기(1~10월) 대비 24% 증가 (7,229M USD)

라. 정책·규제 환경

■ (산업정책) 지식산업 분야 장려 프로그램 도입

- 아르헨티나 정부(경제부 및 지식경제국 담당)는 지식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 달러(dolar tecno)" 프로그램을 도입함
 -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를 시행하면서 달러를 환전하거나 수출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3년 지식경제 분야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장려 프로그램의 시행 목적이며, 시행 계획은 3가지 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 3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또는 새로운 기업 설립 시 단일자유환전시장 (MULC)에서 20% 외환(달러)을 환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받게 됨
 - 수출 증가로 발생하는 외환(달러)의 30%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촉진 프로그램에서 부여하는 회계 크레딧 보너스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한 번에 한해 다른 기업에 해당 혜택을 이전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 지식산업 분야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분야의 수출액은 62억 달러에 달했음
 - '22년 현재까지 지식산업 수출액은 22% 성장하며, 72억 달러를 기록
 - 금년 말까지 수출액은 7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르헨티나 정부 목표인 수출액 100억 달러는 2022년 대비 30% 이상 성장해야 하는 수치임

■ (산업정책) 자동차산업 부양 정책 도입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양법을 제정('22.9.19.)
 - 법령 27686 제정을 통해 현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부가세 환급, 2. 부가세 하향 조정(21% → 10.5%), 3. 소득세 정산 시 가속상각 허가, 4. 2031년까지 수출세 0% 적용임

■ (외환규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외환 통제 조치 지속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 통제를 위해 개인 외환 구매 금액 상한 설정, 중앙은행 송금 규제 조치 강화 등을 발표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채권 보유자들과의 채무 재협상을 공식화
 - 개인 저축용 달러 구매 월 200달러로 제한*, 수입대금 송금 시 중앙은행 허가 필수, 수입대금 선지급 불허 등 외환 통제 조치를 지속 중
 - * 달러 구매액은 월별 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월 2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ex: 특정 월의 카드 사용액이 50달러라면, 해당 월의 달러 구매 허용액은 150달러)
- 특히, 외환규제를 통해 수입 관련 대금 지급을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입 대금 송금 시 애로가 속출

■ (수입규제)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 품목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시행 중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허가제를 통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 품목(자동차, 섬유, 가전기기 등)에 속하는 완성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수입을 억제 중
- 현재까지 총 11번의 수정을 거쳐 HS Code 1,500개 이상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 수정(2022.10월)을 통해 약 39개의 HS Code를 추가
 - 수입허가제 대상 HS Code 리스트의 경우 기존에는 추가 및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정에는 추가만 진행
 -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HS Code를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수입 승인 기한을 최대 72시간에서 60일로 조정함으로써 수입상이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증가
 - * 수입허가제(LNA)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모터 등에 집중

■ (신규 수입관리제도 도입) 기존 수입관리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폐지하고 아르헨티나 수입 시스템(SIRA;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으로 대체

-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은 바이어가 수입하는 규모와 판매 능력과의 부적합한 매칭(실제 바이어 매출 액수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우 등) 및 소송을 통한 수입 승인 획득 용이 등 정부 측 애로사항이 존재, 이에 신규 수입관리제도(SIRA) 도입
- 신규 수입관리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수입 시스템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임
- 기존에 SIMI A/B로 분류하여 2021년/2020년 수입액 대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수입 허가 및 달러 구매 허가를 승인했던 이전 시스템과는 다르게 신규 시스템(SIRA)은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해 수입자의 재무 상태가 확인되어야 수입 허가 획득이 가능

- 또한, 이번 수입 승인 시스템 개편으로 수출입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신규 외환 구매 관련 계좌(Cuenta Corriente Única de Comercio Exterior) 개설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외환 구매 신청/승인이 가능
 -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 승인 허가 여부(SIRA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뒤 외환 구매 승인
 - 이에 따라, 수입 승인 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현재 아르헨티나로 수출 시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수입대금 송금' 관련 문제는 지속될 전망
 - 특히, 신규 시스템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지정하지 않고 수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른 외환 구매·송금 승인 예정으로, 수입 승인 허가 전까지는 선 송금 가능 여부에 대한 파악이 불가

2

시장 분석

- ※ 풍부한 천연자원(식량, 광물 등) 및 재생에너지원(풍력, 태양에너지, 그린수소 등) 보유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 가능
-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남미 진출거점으로 활용 필요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아르헨티나 국토 면적은 278만km²로 세계 8위이며, 이 중 53%가 경작지로 활용 가능하며 국토의 75%가 미개발 상태
- 에너지, 식량 및 광물자원의 보고
 - 광물자원 보유량* 세계 6위, 국토의 4분의 3이 미개발 상태로 향후 자원 개발 잠재력이 다대
 - 농목축 산업은 아르헨티나 GDP 비중의 6% 수준이나, 농축산물 및 가공품 수출이 아르헨티나 총수출의 60%를 상회
 - * 광물자원 매장량: 셰일가스 2위, 리튬 3위, 셰일오일 4위
- 풍력 및 태양에너지, 그린수소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보유
 -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환경으로 재생에너지원 발전 가능성이 큰 국가이나,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원 개발 활동 저조
 - 전임 마크리(Macri) 정부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Law 27.191)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젝트 유치를 진행하고 있어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중남미 주요 국가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의 주요 경제 대국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남미시장의 진출거점으로 활용 가능
 -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회원국(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과의 수출입 시 부과되는 관세, 물류비 측면에서 혜택 수혜 가능
 - * 아르헨티나의 경우 남미에서는 비교적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나, 부품 등 조달이 원활치 않음. 이에 따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 특히,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입 파트너는 브라질로서 남미 1, 2위 시장 공략 가능

■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진행 중

- 2018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현재(2022년 10월)까지 총 7번에 걸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 조달, 기술 장벽(TBT) 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협상 진행
-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TA)을 통해 남미 신흥시장 선제적 확보* 및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완성 가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은 남미 전체 인구의 70%(2.95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68%(3.4조 달러) 차지(2020년 기준)

** 한-칠레 FTA('04.4월 발효), 한-페루 FTA('11.8월 발효), 한-콜롬비아 FTA('16.7월 발효), 한-중미 FTA('21.3월 중미 5개국과 전체 발효) 등

■ 경공업 위주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의 한계로 수출 경쟁력 상실

■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중간재 산업인 중화학 산업 육성 없이 경공업 위주의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 추진 중

- 아르헨티나 수입 중 자본재 및 그 부품 등 중간재 비중이 69%를 차지하며, 수입 대체 산업이 현지 조립 생산 형태로 굳혀지는 추세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본재 수입 관세 하향 조정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생산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상실로 대외 수출 확대 애로

■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중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SIMI)을 중소기업에 필요한 중간재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개편 중
- 한편, 신규 수입 승인 시 승인 시점에 바로 대금 지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우선순위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생산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노동시장의 경직성

■ 전통적인 강성 노조 및 근로자 중심의 현지 노동법(근로계약법)은 아르헨티나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 경직된 노동법으로 한번 고용하면 해고는 어려우며, 노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여 근로자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

나. 수출

■ '23년, 국제 경기 악화 및 외환 규제 등으로 아르헨티나 교역량 감소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수입량 감소, 특히 내수시장 악화와 외환 규제로 원활한 수입 진행 불가로 '19~'20년 수입량 감소
 - '21년에는 점진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며 예년 수입량 회복에 성공했으며, '22년도 전년 대비 수출액 19.5% 증가, 수입액 37.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산업재, 자본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지 경기가 활성화되면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그러나, 현지 외환 규제와 폐소화 약세 영향으로 '23년 수입액은 -3.7% 감소, 국제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액은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단위: 10억 달러,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수출액	78.0	93.2	86.5	87.4	90.1
총 수입액	59.3	81.7	78.6	79.7	81.8
무역수지	18.7	11.5	7.9	7.7	8.3
경상수지	6.7	-3.4	-9.7	-11.3	-11.6
경상수지(%)	1.4	-0.6	-1.6	-1.8	-1.8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2025년은 전망치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2.9.7. 기준 전망)

■ 교역 동향

- 전임 마크리(Macri) 정부(2016~2019년)의 대외개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악재로 교역량은 집권 후반기부터 축소
- 현 페르난데스(Fernandez) 정부(2019년 12월~현재)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통상정책을 표방하고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등락 반복 중
 - 집권 초인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어 교역 규모 감소
 - 그러나 '21년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추세로 수출입이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활발한 교역을 진행하고 있음
 - '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에너지 상승 등으로 수입액도 증가

〈 아르헨티나 교역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58,384 (1)	52,820 (-9.5)	65,034 (5.64)	54,821 (-15.70)	77,838(41.82)	67,042 (15.01)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감률)	66,899 (20)	39,130 (-41)	49,125 (-24)	42,355(-13.78)	63,183(49.17)	64,520(40.40)
무역수지	-8,515	13,690	15,990	12,528	14,654	2,522

자료: GTA(Global Trade Atlas)(자료 검색일: 2022. 9월)

■ 수출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브라질, 중국,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
 -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수출의 60% 이상 차지
 - 이에 따라 기후에 따른 농축산업 생산량 및 국제가격 변동에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 국제 곡물 시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수출 증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10대 수출 대상국 〉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1		국가	2022(1~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브라질	11,760	48.09	브라질	9,336	11.39	13.93
2	중국	6,154	17.35	중국	5,129	2.53	7.65
3	미국	4,914	50.56	미국	5,098	46.34	7.61
4	인도	4,293	71.22	칠레	3,722	29.20	5.55
5	칠레	4,174	44.53	인도	3,634	24.91	5.42
6	베트남	3,220	12.98	네덜란드	2,576	10.27	3.84
7	네덜란드	2,984	87.29	베트남	2,508	-0.29	3.74
8	페루	1,995	44.81	페루	1,798	26.28	2.68
9	인도네시아	1,862	12.98	인도네시아	1,584	10.76	2.36
10	스페인	1,846	87.29	한국	1,573	29.52	2.35
:							
34	한국	1,720	148	.	.	.	.
전체		77,838	41.82	전체	67,042	15.01	100

자료: GTA(Global Trade Atlas)(자료 검색일: 2022. 9월)

■ 수입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브라질,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 차지
 - 대부분의 공산품, 중간재 및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 '21년 코로나19 완화 및 경기 호조로 수입액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으며, '22년(1~9월)에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하며 상승세를 유지

〈 아르헨티나 10대 수입 대상국 〉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1		국가	2022(1~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중국	13,525	56.24	중국	13,346	40.28	20.69
2	브라질	12,391	43.28	브라질	12,448	36.97	19.29
3	미국	5,864	34.33	미국	8,538	96.35	13.23
4	파라과이	2,914	31.42	독일	2,112	11.21	3.27
5	독일	2,527	27.12	볼리비아	1,791	122.25	2.78
6	태국	1,553	55.44	파라과이	1,659	-30.89	2.57
7	멕시코	1,403	48.38	인도	1,444	39.52	2.24
8	인도	1,393	74.01	태국	1,398	22.81	2.17
9	이탈리아	1,312	30.31	멕시코	1,305	27.03	2.02
10	베트남	1,184	56.98	이탈리아	1,259	29.37	1.95
:							
21	한국	648	77.37	한국	566	22.03	0.88
전체		63,183	49.17	전체	64,520	40.40	100

자료: GTA(Global Trade Atlas)(자료 검색일: 2022. 9월)

■ 대한(對韓) 수입 규제 현황

- 한국 대상 수입 규제는 전체 3건으로, 2021년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유형별: 3건 모두 반덤핑 규제 조치
 - 품목별: 화학 2건, 전기/전자 1건
 - '22년 말 기준으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관세 부과가 만료되었으나, 현재 일몰조사 중으로 관세 부과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23년 말 디옥틸프탈레이트가 만료될 예정이나 위와 같이 만기 이후 일몰조사, 재심 등으로 규제 연장이 비일비재하여 만료일 이후 재확인이 필요함

〈 주재국의 對韓 수입 규제 내용 〉

연번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화학	디옥틸프탈레이트 (DOP; Deoctyl Phthalate)	2917.35.00	반덤핑	'17.4.5.	〈최종〉 '18.10.4.	- 대상 국가: 중국, 멕시코, 한국 - '18.10.4.: 반덤핑 최종 판정 - 반덤핑관세(6.73%) 확정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8.10.4.~'23.10.4.
2	전기전자	삼성 유입 변압기 (Transformer)	8504.23.00	반덤핑	'13.1.3.	〈최종〉 '14.7.2. 〈일몰〉 '19.11.22.	- 대상 국가: 한국, 중국 *반덤핑 관세: 한국(52%)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7.7.17.~'24.11.22.
3	화학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00	반덤핑	'12.4.25.	〈최종〉 '13.10.24. 〈재심〉 '19.10.22.	- 반덤핑관세 : 17.61% *16.3.29.: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실시 *17.9.28.: 재조사 결과 발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8%→17.61%)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3.10.24.~'22.10.22.

자료: WTO,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정리(자료 검색일: 2022. 9월)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산업별 이슈

- (소비재/백색가전) 가전제품은 판매량의 약 20%가 수입이며, 80%가 현지 생산된 품목임.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현지 생산 비중 목표를 10:90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수입 규제 조치 강화 우려
* 정부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허가제 대상 리스트에 백색가전 추가(2020.5월)
-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의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을 장려하는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로 정부에서 지속적인 규제를 추가하고 있음

기타 통상정책

-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내수산업 발전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 이에 따라 완제품 수입은 어려움을 겪으며 수입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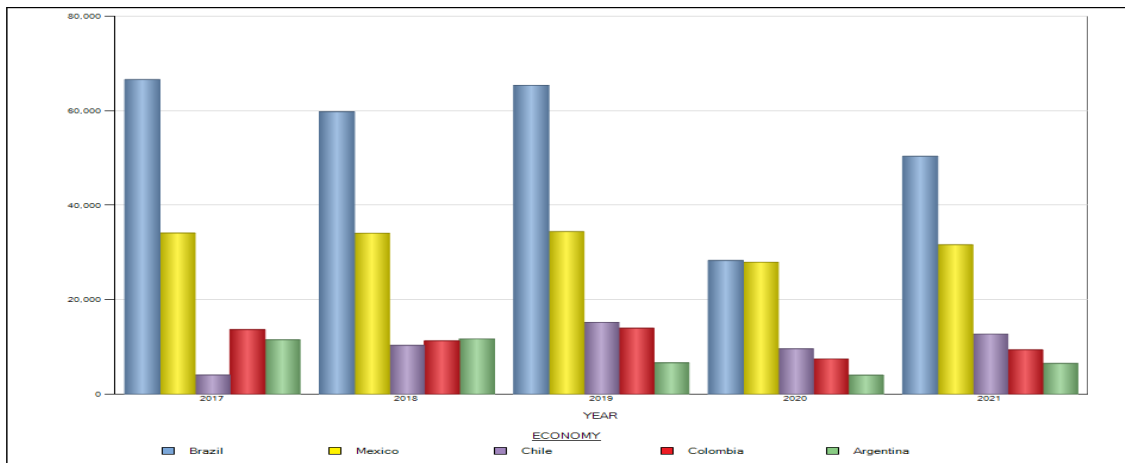
다. 투자 진출

■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18년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금액 기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FDI 유입이 많은 나라였으나 '21년 5위로 하락함
- 전임 마크리(Macri) 대통령 취임 이후 '16년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약 3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17년, '18년에는 각 115억 달러, 119억 달러에 달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기 상황이 악화되며 기존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과 함께 FDI 유입액이 감소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로 인해 40.1억 달러까지 내려갔으나 '21년 경기 회복에 따라 약 62.5% 증가한 65.3억 달러를 기록

〈 중남미 주요국 FDI 유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브라질	59,802	71,989	28,318	50,367
2	멕시코	34,746	32,921	27,934	31,621
3	콜롬비아	11,535	14,493	9,637	12,719
4	칠레	7,021	11,437	7,459	9,402
5	아르헨티나	11,873	6,244	4,019	6,534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2022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 UNCTAD

〈 아르헨티나 FDI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FDI	2017	2018	2019	2020년	2021년
FDI 유입	11,517	11,873	6,244	4,019	6,534
FDI 잔액	80,700	72,589	70,458	84,319	98,928
FDI 잔액/GDP	12.56	14.02	15.82	22.01	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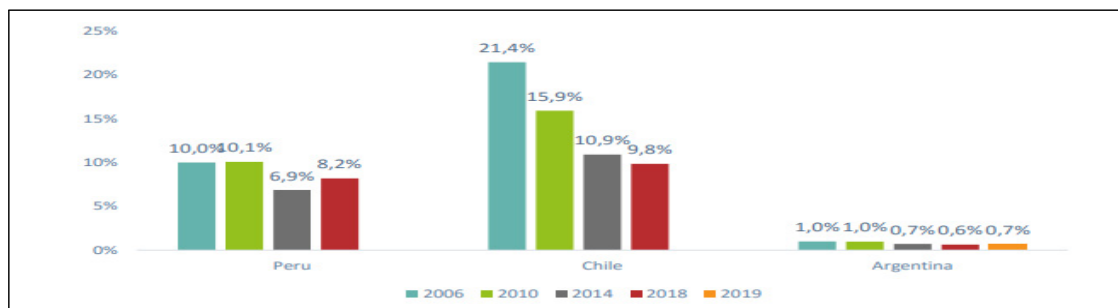
주: 2022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 UNCTAD

■ 광산업 관련 정부정책

- (광업 현황)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 중 광산업 비중은 약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광산업에 의존하는 페루나 칠레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은 편
 - 반면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광업 투자액 순위 10위권이며, 리튬 광산 투자액은 세계 1위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발전할수록 아르헨티나의 광물자원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중남미 주요 국가 광산업 GDP 점유율 〉



자료: 아르헨티나 광산업협회(CAEM) 및 ABCECB(컨설팅 업체)

- (정부정책)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업투자법(24.196/93)을 제정

〈 광업 투자법 주요 내용 〉

1. 세제 안정: 타당성 조사 시 적용하는 세율을 30년간 동일하게 유지
2. 관세 0%: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본재, 원료 수입 시 무관세
3. 탐사 기간 중 세제 혜택: 이중 소득세 공제, 부가가치세 6개월 내 환급
4. 감가상각: 3년간 가속상각 가능
5. 주세 최대치 설정: 로열티 최대 3%로 상한선 설정

라. 프로젝트

■ 천연가스관 프로젝트 발표

- 네우켄(Neuquén)주 트라타옌(Tratayen)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살리켈로(Salliqueló;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남서쪽 약 470km) 및 산헤로니모(San Jerónimo;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북서쪽 약 350km)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가스관 프로젝트 발표
 -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로젝트 총 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추산되며, 1단계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은 약 15억 달러임
 -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도시가스 공급 담당업체인 테세트롤(Tecetrol)의 CEO 리카르도 마르코우스(Ricardo Markous)는 “5년 뒤 아르헨티나의 일일 가스 생산량은 1억 7천만㎥, 이중 네우켄(Neuquén)주의 생산량이 1억 4천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아울러, 네우켄(Neuquén)주의 석유 생산량은 일일 75~80만 배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트라타옌(Tratayen)~살리켈로(Salliqueló)를 잇는 가스관 건설작업으로, 1단계 완공 시 일일 약 1,100만㎥의 운송능력 확보 ('22.8월~'23년 겨울)
 - (2단계) 1단계 가스관의 운송능력을 보강하는 작업으로, 완공 시 가스관 운송능력이 일일 1,100만㎥ → 2,200만㎥으로 증가 ('23년 겨울~'24년 겨울)
 - (3단계) 2단계 가스관을 산헤로니모(San Jerónimo)까지 연장하고, 총 운송능력 역시 일일 2,200만㎥ → 3,900만㎥로 증가 ('24년 겨울~'25년 겨울)

마. 자원 개발

■ 광업, 아르헨티나 산업 중 높은 성장 가능성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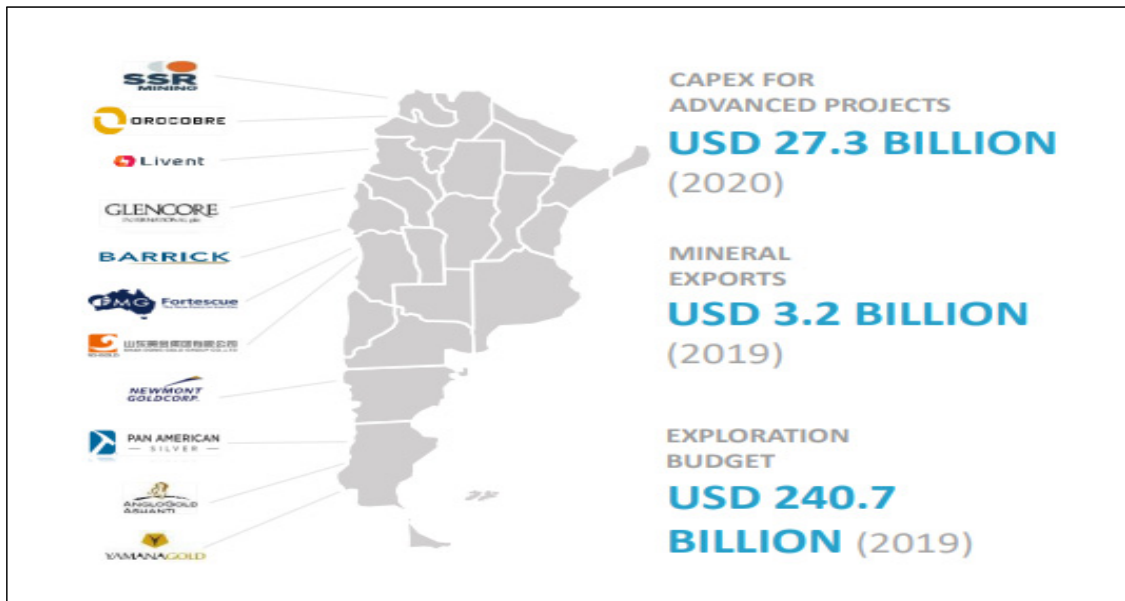
- 현재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규모의 구리 매장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30대 금광 중 2개(Veladero, Cerro Negro)를 보유
 - 글로벌 광산업체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매장량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뎠다. 아르헨티나 국토의 75% 가량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
 - 특히, 금, 은, 구리 등을 제외해도 이차전지 등에 활용 중인 리튬 매장량이 많아 자원 개발에 유리한 조건

〈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

광물(합금)명	전 세계 생산량	전 세계 생산량 순위
금	3,241톤	60톤 (2020), 세계 17위 생산국
은	24,766톤	1,000톤 (2020), 세계 9위 생산국
구리	2,026만 톤	17,435톤 (2018)
아연	1,221만 톤	14,877톤 (2019)
리튬	87,360 톤	6,200톤 (2020), 세계 4위 생산국

자료: 칠레 국립 지질학 및 광업 서비스(Sernageomin), 아르헨티나 광업 사무국(Secretaria de Minería)

〈 아르헨티나 광업 투자 주요 기업 및 현황 〉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청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산 프로젝트가 많아 '19년 대비 '30년 아르헨티나 광물 수출액은 3.4배 정도 증가할 전망 ('19년 32억 달러 → '30년 107.65억 달러)
 - 아르헨티나의 최근 7개년 광업 투자는 평균 연 1억 9,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총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의 약 2.8%를 차지
 - '21년 아르헨티나 광산 투자액은 2억 2,680만 달러로 '20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
 - * '22년 수치는 아직 집계 중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아르헨티나 광업 Stage별 투자 현황 〉

(단위: 백만 USD)

St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arly	28	45	47	61	67	31.8	41.5
Exploration	30.5	28	45	56	56.5	33.7	58
Advanced	30.5	28	45	56	56.5	33.7	58
Operation	55	50	72	68	60	55.5	69.3
총액	124	151	209	241	240	154.7	226.8

자료: Standard & Poors, 아르헨티나 광업부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가. 교역

■ 한-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 '22년 1~9월, 한국 무역수지 적자
 - 한-아르헨티나 교역 구조는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무역 형태를 띠고 있음
 - '22년 1~9월 한국은 4.16억 달러를 수출하고, 17.89억 달러를 수입하며 -13.73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21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2억 달러로 '18년 최저 수준인 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를 유지 중
 - '18년 급격한 폐쇄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對한국 수입 감소 및 가뭄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교역량이 극적으로 감소
 - 현재 교역액은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아르헨티나의 對한국 수입은 4억 달러 수준을 유지 중

〈 한-아르헨티나 교역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수출	769	836	536	341	332	391	416
수입	833	612	406	865	894	1,824	1,789
한국 흑자 규모	-37	224	130	-524	-562	-1,433	-1,373
교역 총액	1,629	1,448	942	1,206	1,226	2,215	2,206

자료: KITA(2022. 10월)

- 우리나라는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아연도강판, 운반하역기, 건설중장비 등 공산품(자본재, 중간재)을 수출하고, 사료, 식물성 유지, 은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
 -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완성품보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혹은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기술집약적 제품 위주로 수출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농산물 및 광물 등의 1차 상품이 대부분이며, 전체 수입액 중 사료 비중이 70%로 매우 높음

〈 2022년(1~9월) 한-아르헨티나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품목	금액(천 달러)	비중(%)	수입 품목	금액(천 달러)	비중(%)
자동차부품	49,796	11.95	사료	1,327,586	74.17
경유	45,721	10.97	식물성유지	136,366	7.62
합성수지	42,178	10.12	박류	103,050	5.76
윤활유	23,760	5.70	기타정밀화학원료	78,491	4.39
건설중장비	18,128	4.35	은	29,913	1.67
기타정밀화학원료	15,485	3.72	새우	21,839	1.22
아연도강판	15,469	3.71	의약품	19,438	1.09
의약품	14,103	3.38	오징어	13,249	0.74
기타석유화학제품	10,048	2.41	기타어류	12,905	0.72
프레스금형	8,366	2.01	아연광	10,840	0.61
총액	416,770	100	총액	1,789,872	100

주: MTI 4단위 기준 품목 분류

자료: KITA(2022. 10월)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현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바이어와의 협의가 중요

-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보유고 유지 및 확충을 위해 외환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바이어들이 수입 대금을 先 송금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업체들도 파이낸싱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 우리 기업 M사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 기존 T/T 거래에서 대금 지급을 선적일 기준 240일 후에 진행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현재 4~5개 사와 활발히 거래 협의를 진행 중
- 특히, 관련 분야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파이낸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 현지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인지, 자금 유동성 보유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한 뒤 파이낸싱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관을 통한 크로스 체크 등을 시행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통보 A7532호를 통해 수입 승인 카테고리화 및 통관일 기준 180일 경과 이후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 구매 허용

나. 투자

■ 자원 확보, 남미공동시장 공략을 위한 대기업 진출 등 누적 8.5억 달러 수준

●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17년까지 누적 기준 1.9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8년 포스코의 리튬 광산 인수* 이후 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2년도 기준 8.5억 달러로 집계

- '19~'21년은 투자액 감소 추이를 유지하였으나, '22년 상반기 2.1억 달러 투자가 진행되며 증가세를 기록

* (리튬 광산) 포스코, 갤럭시 리소스(호주)로부터 아르헨티나 광산 인수(2.8억 달러) 및 주변 광구 추가 확보('19.10.)

● 현지 진출 우리 기업 8개 사,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운영 중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심화로 현지법인 대폭 축소 및 철수('02) 및 외환통제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사업 환경 극도로 악화('12)

- 親기업 성향의 마크리(Macri) 정권 출범(2015.12~2019.12, 14년 만의 우파 정권)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 관심이 증가했으나, 페르난데스(Fernandez) 행정부 출범 후 보호주의로 재선화하며 관심도 하락

- 이후 코로나19 사태 발생 등으로 아르헨티나 현지 진출은 미미한* 상태

- 포스코의 현지 리튬 생산 관련 협력업체들의 투자 진출이 최근 투자 사례

*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한국 전체 해외 투자 금액의 0.07%로 미미한 수준

〈 對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

(단위: 건, 개, US\$ 천)

법인구분	항목	합계	2019	2020	2021	2022
현지법인	신고건수	10	5	1	1	3
	신규법인수	2	2	-	-	-
	신고금액	235,307	17,107	2,800	3,000	212,400
	송금횟수	10	5	1	1	3
	투자금액	235,307	17,107	2,800	3,000	212,400
지점	신고건수	1	1	-	-	-
	신규법인수	1	1	-	-	-
	신고금액	500	500	-	-	-
	송금횟수	3	3	-	-	-
	투자금액	300	300	-	-	-
지사	신고건수	5	1	2	1	1
	신규법인수	1	1	-	-	-
	신고금액	47,138	29,399	17,434	305	305
	송금횟수	9	-	7	1	1
	투자금액	38,774	-	29,595	305	30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2.10.)

〈 한국 기업의 對아르헨티나 업종별/법인별 투자 현황 〉

(단위: 건, 개, US\$ 천)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6	21	54,955	88	29,434
광업	46	12	771,677	223	622,453
제조업	50	21	148,214	59	53,637
건설업	4	2	4,900	19	2,105
도매 및 소매업	17	6	164,543	20	149,003
운수 및 창고업	1	0	20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882	1	88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4	3,342	9	1,641
합계	188	67	1,148,712	419	859,15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누적 데이터(검색일: '22.10.)

■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 기업 현황

■ 삼성전자 외에 제조법인은 없으며, 판매법인 위주로 진출

- 아르헨티나의 큰 경기 변동성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며, 기존 진출 기업이었던 LG전자, 세라젬은 코로나19 이후 철수 진행
- 그러나 최근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는 수산화리튬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일부 협력 업체들이 현지 진출을 시작하며 현지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 기업 현황 〉

구분	진출업체	진출년도	비고
전자	삼성전자	1996	전자제품
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1977	무역, 자원, M&A
서비스업	한국선급	2007	등록선박검사, 해운 관련 정부 업무 연락, 신규 등록 유치
	LX판토스	2017	물류
	제일기획	2018	광고대행
수산업	한성기업	1985	원양산업
광업	포스코	2015	리튬
제조	한영엔지니어링	2016	특수용기 제작 (포스코 협력업체)

자료: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 (투자 성공 사례) 포스코 리튬 산업

- 포스코의 경우 살타(Salta)주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지역에서 염호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 중
- 추정 매장량은 약 1,350만 톤으로 '24년 상반기 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만 5천 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 현재 건설 중인 공장 외에 2만 5천 톤의 2단계 증설 투자도 검토 중
 - * 수산화리튬 2만 5천 톤은 전기자동차 6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가능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의료기기/의약품 시장 진입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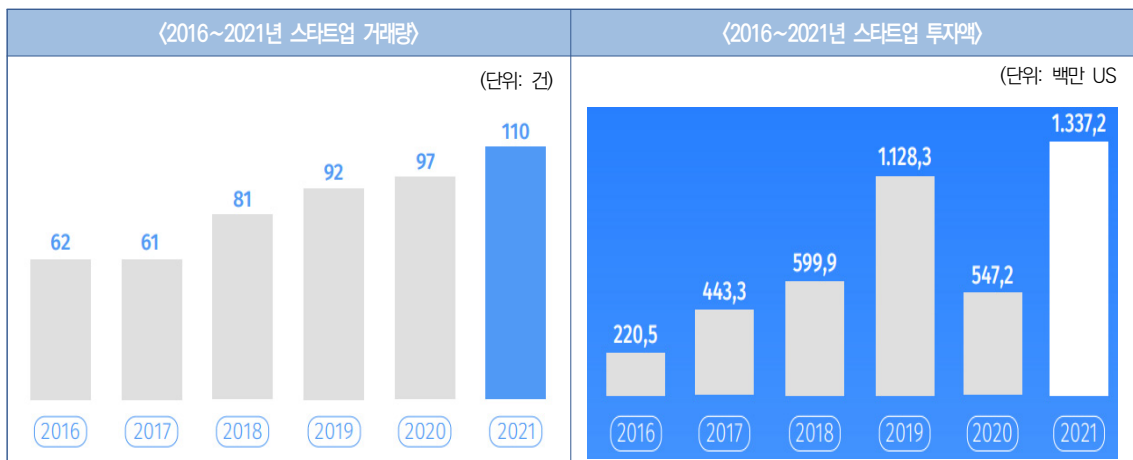
- 한국 의료장비/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까다로운 제품 등록 절차로 인해 시장 진출 애로
- 아르헨티나는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위생 고경계국(High Vigilance Country)으로 분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지 제품 등록이 비교적 용이
- 반면, 한국과 같이 상기 위생 고경계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청(ANMAT)의 해외공장 심사(GMP)를 통한 안전성 인증 혹은 위생 고경계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
 - * 의약품 등록 절차가 의료기기 등록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
- 한국을 위생 고경계국으로 분류, 간이 인증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약 체결 등 추진 필요

■ 우리나라 국유지 야타마우까(Yatamauca) 활용을 통한 공급망 애로 해소

- 아르헨티나 산티아고델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주에 위치한 약 2만여 헥타르 규모의 우리나라 국유지로 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농장
- 농장의 전도(EC)는 각 구획별로 2.5~7.2, 5~12.2 정도이며, 산도(PH)는 8.0~8.5, 8.4~8.7 정도로 분석
- 토지 전도가 4ds/m을 넘기면 염분이 많은 토지로 분류, 야타마우까(Yatamauca) 농장은 곡물을 재배하기에는 부적합하나 축산업은 문제없는 수준
- 특히 PH가 8.5 미만으로 나트륨 함유량이 그리 높지 않아서 사료용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상황
-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부지 대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3년 사업 공모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물류 서비스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와 아르헨티나가 취약한 교육 분야 등이 유망 협력 분야
 - 현지 물류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스타트업 A사는 한국 동종 스타트업 C사와 상호 기술협력 및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한국 교육용 콘텐츠 제작사 G사는 아르헨티나 A사와 교육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을 공동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음
- 이외에도 IT 산업 분야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확산과 함께 우리 기업과 현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유망 분야로 판단
 - 아르헨티나의 경우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Win-Win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개발 가능
 - 현지 IT 계열 종사자들의 수준 높은 영어 실력* 및 최소 9만 명 이상의 IT 계열 전공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높은 인적 잠재력 보유
 - * 아르헨티나의 영어 능력지수는 중남미 1위, 전 세계 25위 차지 (Education First 자료, 2020년 기준)
- (협업 방법)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현지 시장 진입 및 제3국 시장 개척
 -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서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활발하며, 지원금 및 멘토링 제도를 운영
 - 또한, VC 투자는 '21년 기준 전년 대비 거의 4배에 가깝게 성장
 - 아르헨티나 스타트업협회(ARCAP)에 따르면 '21년 현지 스타트업은 가장 많은 양의 거래량(Transaction)을 기록



자료: ARCAP(아르헨티나 스타트업협회)

〈 '21년 기술 분야별 스타트업 분포 현황 〉

순위	스타트업 기술 분야	비중
1	BioTech	45.2%
2	FinTech	26.2%
3	HealthTech	14.3%
4	AgTech	11.9%
5	EdTech	2.4%

자료: ARCAP(아르헨티나 스타트업협회)

- IDB나 K-LAC Business Summit 등에서 스타트업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아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아르헨티나 또는 중남미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공급망

- 아르헨티나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국가로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에서 수요가 많으나 공급선 확보가 어려운 품종의 경우 현지 농장주들과 계약을 통한 계약재배 시스템 도입 가능
 - 한국에서 필요한 종자가 현지에서 재배 가능할 때 추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종자 수입이 이루어져야 함
 - 아르헨티나에서 계약재배를 시도한 기업이 있었으나, 한국-아르헨티나 간 농림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부재로 한국산 종자 수입에 실패한 사례 존재
 - 통상 협상 의제화(한-메 T/A), 양국 농림수산물 간의 MOU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필요
 - 아르헨티나는 농축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한국이 부족한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수 있음
 - 한국에서 필요한 곡물을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계약재배 후 공급할 수 있다면 식량자원 공급처 다변화 및 공급난 발생 시 해소에 기여 가능



2023

아르헨티나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 디지털 플랫폼(일반 판매사이트 및 SNS)을 활용한 프리미엄 소비재 판로 개척
- ※ 현지 파트너와의 기술협력, 브랜드 마케팅 등 진행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 진입
- ※ 기술력에 기반한 IT·하이테크 제품(의료기기 등) 시장 진입 기회 적극 모색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아르헨티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높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좋은 인식
- 빠른 신기술-제품 접목 (뉴 트렌드 제품의 높은 경쟁력)
- 납기 준수 등을 통해 쌓인 높은 신뢰도

약점 (Weakness)

-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낮은 시장점유율
- 수입규제/송금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환경 악화
- 현지 제조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완성품 수출 애로

기회 (Opportunity)

- 현지 제조·생산 후 판매 여건 개선
- K-Culture 확산에 따른 바이어 관심도 증대
- 온라인 시장 성장세 유지 (일반 온라인 시장 및 SNS 시장의 성장 가능성 高)
-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진행 중

위협 (Threat)

- 수입규제/송금규제 강화 (통상 여건 악화)
- 국제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 감소 및 치안, 안전 문제 심화
- 브랜드 충성심이 적고 가격에 민감한 현지 소비시장
-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신용도, 경제정책 등 급변 가능성

전략 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국 문화 관심 청년층 소비 중점 공략 • 현지 디지털 마켓 공략 (프리미엄 소비재)
ST 전략 (강점 활용)	• 송금규제/수입규제 대응을 통한 현지 시장 개척 • 뉴 트렌드 제품 현지 마케팅 진행,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 적극 홍보
WO 전략 (기회 포착)	• 현지 제조 시 이점을 활용한 중간재, 조립 키트 판매 기회 발굴 • 아르헨티나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및 기술협력 등
WT 전략 (위협 대응)	•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시장점유율 제고

진출전략

디지털 세대
소비 집중 공략

무역보험 활용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진출

기술협력을 통한 현지
제조,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 진행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3년 진출전략

구 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자동화 설비	- 현지 제조/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을 활용, 자본재 위주 진출 모색 - 제조업체 니즈 파악 및 설비 판매, A/S 제공 가능한 협력업체 파트너십 구축
일반기계/기자재	- 자동차산업 등 노후화된 기계설비 교체 수요 적극 발굴 - ICT,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자재 협력업체 발굴 필요 -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인프라, 에너지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전망이다 바, 관련 기자재 관심 기업 발굴 추진
중간재	현지 제조를 위한 중간재 홍보, 기술협력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 진출 필요
화장품	-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은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기능 등 홍보 강화 및 제품 차별화 - 주요 드러그스토어(Drug Store), 화장품 전문 유통망 입점 기회 모색 -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OEM 계약 등을 통한 진출 추진
의약품	- 현지 주요 의약품 유통/제조업체를 통한 시장 진출방안 모색 - 고부가가치, 고가 상품 등 품질에 집중한 제품으로 진입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집중 필요	아르헨티나 내/외부적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시장 선점 필요 (내부) 대선으로 인한 경기 부흥정책 활용 필요 인프라 투자 및 프로젝트 참여 등 (외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 시장 점유율 확보 및 디지털 판매 채널 진입 전략 수립 필요

2-1. 아르헨티나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품목 진입 기회 모색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시행 중

- * 자동차 설비, 일반 자본재 등은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품목 중 하나임
- * 현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 수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지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또한, '22년 5월 오일 및 가스 분야 기업 대상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한 외환규제 조치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노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르헨티나 정부의 프로젝트 관련 자본재 수입 완화

- 법령 277/2022 제정을 통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생산기업에는 외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일반산업 및 완성품 수입업체들의 경우 수입 승인 카테고리에 따라 통관일 기준 180일 이후 외환시장에서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구매가 가능하여 정상적인 제품 수입이 어려운 상황
-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여 관련 프로젝트 자동차 설비, 자본재 등 진출이 유망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산업 부양법 제정 ('22.9.19.)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부양법인 법령 27686 제정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부가세 환급, 2. 부가세 하향 조정(21% → 10.5%), 3. 소득세 정산 시 가속상각 허가, 4. 2031년까지 수출세 0% 유지임
- 현지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신규 제조 설비 도입 등에 자원을 투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완성차 수입은 어려움을 겪으며 수입물량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오일&가스 분야) 한국 제품 · 기술 홍보 강화 및 발주처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주요 발주처 대상 기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의 기술경쟁력 홍보
- 현지 발주처 방한 행사 초청을 통한 친한파 양성 및 우리 기업 참가 기회 창출
 - * Global Project Plaza, MDB 플라자 등 현지 발주처 초청사업 활용
 -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주처-무역관-기업 간 유기적인 소통 · 협력 중요

- (광물) 포스코의 현지 광물 생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모색
 -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각종 설비 및 기자재가 필요하며, 한국 협력업체 등을 통해 일부 조달 추진 전망
 - 특히, 포스코의 경우 1차 생산공장 건설과 함께 추가 투자를 계획 중으로, 관련 설비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 생산라인 자동화 시스템, 생산용 설비류(프레스 등) 등 제조 설비 및 장비 공급 모색 필요
 - 아르헨티나 정부의 산업 현지화 정책에 따라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류까지 현지 생산 추진 전망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자동화 시스템, 생산용 설비 등의 현지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설비·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
 - 다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및 외환송금 규제로 인해서 파이낸싱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 상당수의 품목이 현지 수입 통관 후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 수입 대금 송금 가능

2-2. 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재/기자재 수요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아르헨티나 정부는 통신 네트워크망 확장 프로젝트 “Plan Conectar 2020~2023”을 발표하며 중점적으로 사용할 품목들을 선정
 - * 총 4개 세부 분야(위성, 광통신, 디지털 TV, 데이터 저장) 관련 사업
- ※ 국영 통신기업 ARSAT에서 전체 프로젝트 담당
 - * 시공에 참여하는 설치 기업들은 ARSAT에서 요구하는 제품 사양 기준 충족 전제 하에 개별 구매 진행
- ※ 천연가스관 프로젝트 추진
 - *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추산되며, 1단계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은 약 15억 달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재 아르헨티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중
 - '20년부터 진행 중인 통신망 프로젝트 외에도 '22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가스관 건설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
 - 아르헨티나는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재, 기자재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상당 부분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
- 주요 프로젝트 중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보유한 ICT(위성, 광통신, 디지털TV, 데이터 저장) 분야는 현지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국영 통신기업인 ARSAT에서 진행 중인 광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IPTV, VOD, 인터넷 속도 개선 및 보안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 추진 중임
 - 또한 통신망(모바일 통신망 타워 건설) 사업 및 데이터 센터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관련 기자재 납품을 모색해볼 수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ICT 분야)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품목이 정해진 광섬유 케이블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프로젝트 참가 가능성 제고
 - (시장 현황) 광섬유 케이블의 경우 현지 수요가 많으나, 가격 경쟁이 심해 우리 기업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편임
 - 중국산 제품이 중남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품과 약 50% 내외의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됨. 코닝(Corning), 프라이스만(Prysmian Group), 후루카와(Furukawa) 등의 유명 브랜드와는 100%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중국산의 아르헨티나 시장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 (경쟁력) 한국산 케이블은 품질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쉽지 않은 실정

- (진출전략) 아르헨티나 정부 발주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중요
 - 한국 중소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 발주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 바로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지 공공조달 벤더 등과 협력하는 방법이 효과적
 - * 프로젝트 입찰 참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유통상 등과의 거래 추진 바람직
 - 또한, 현재 아르헨티나의 송금 규제(통관 후 180일 이후 송금 가능)로 인해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면 현지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의 경우 현지 수입자들에게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2-3. K-Beauty,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한국 문화 및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 K-Culture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 확대
- ※ 아르헨티나는 대체로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품질 좋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관심도 증가 추세
 - * 한국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양호해서 아르헨티나 시장에 충분히 매력적
 - * 일반적인 제품보다는 차별화된 패키징, 기능성 품목 등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르헨티나 화장품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라 판매량이 하락하며 심한 타격을 입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며 화장품 수요가 증가 추세
 -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 아르헨티나 주요 유통사 B사의 경우 한국 화장품 유통숍을 모방한 뷰티 전문 리테일숍을 오픈
- 셀프케어 위주의 제품이 이목을 끌면서 메이크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 추세
 - 여러 화장품 리테일러들은 지속적인 메이크업 강의 및 제품 구매 시 청강 가능한 현지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웨비나 등 이벤트를 통해 메이크업 제품 판매 확대 추진
 - 향후 화장품 판매에 있어 SNS 마케팅 능력이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화장품) K-Culture 관련 분야 중 아르헨티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 필요
 - K-Beauty가 현지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고, 색조화장보다는 스킨케어 제품, 마스크팩 등이 인기몰이 중
- (경쟁력) 현지에서는 한국 제품이 품질면에서 중국산보다 좋다는 평이 일반적이거나, 가격 차이로 인해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
- (진출전략) 일반 시트 마스크팩은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수입 및 제조를 진행하거나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제가 유통되고 있어 패키징이나 어플리케이션이 독특한(고무, 버블 마스크팩 등) 품목이나 비건, Cruelty Free, 자연주의 화장품 등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컨셉이 필요
 -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보다는 중상류층 소비자를 겨냥한 하이엔드(High End) 제품을 전략적으로 론칭하는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 혹은 K-Pop 스타/그룹과의 콜라보 등을 통해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제품들의 시장 진입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 (진출 방법) 아르헨티나에서 화장품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국립식품의약청(ANMAT)에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제품 등록 진행 가능
 - 의약품보다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만 현지 업체가 경험이 없을 경우 수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업체를 발굴해서 시장 진입 추진 필요
 - 샘플 수령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로 무역사절단이나 일반 출장을 통해 핸드 캐리로 샘플을 가져와 직접 관심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최선
 - 화상상담 시 제품 시연 등을 통해 품질을 확인시키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

2-4. 의약품/의료기기, IT융합 및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아르헨티나 보건제도 현황

- * 아르헨티나는 70년 넘게 무상 의료 체계를 유지 중. 2010년 5%대에 머물러 있던 GDP 대비 보건비 지출 규모는 2019년 9%까지 상승하여 400억 달러에 육박했고, 이 중 공공 지출이 74.43%를 차지
-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보건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2%까지 확대

※ 초기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한국의 보건산업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수입 현황

- * 제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수입제품 비중이 80%에 달하며 '21년 수입액은 7.6억 달러 수준
- * 현지 생산이 가능한 Low-mid Tech 분야는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따라 주로 현지에서 조달하고, High Tech 분야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입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 보건산업 인지도 상승

- 페르난데스(Fernandez)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 우리 정부와 두 차례 유선 면담을 진행*
 - * 첫 번째는 질병관리청, 이어서 한국 정상과 직접 연락할 정도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처와 보건산업 및 제품에 관심 표명
- 실제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및 여러 주정부에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매
- 현재는 진단키트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요가 많이 줄었으나, 민간병원에서는 한국 보건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구매 진행

■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 인증 보유 필요

- 현지 인증기관인 아르헨티나 국립식품의약품청(ANMAT)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위생 고경계국에서 제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
 - * FDA(FDA certificate for foreign government) 혹은 CE mark, 유럽 발행 FSC 등

■ 고품질(high-end)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아르헨티나는 만성적 인플레이션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공급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의료기기 구입 결정 시 가격요소가 아직까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가 제품은 주로 중국산 혹은 현지 생산 제품으로 시장 공급이 가능한 상황
- 하이테크(High-Tech) 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은 가격 수준이 높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차별화된 기술력 및 레퍼런스(reference) 강조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타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은 열위
- 아르헨티나 보건 시장은 보수적으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유럽 또는 기타 중남미 국가 판매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레퍼런스(reference) 적극 활용 필요
- (진단키트) 아르헨티나 보건시장 특성상 새로운 브랜드 도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지만 진단키트의 경우 다년간 높은 가격에 구매해오던 제품이기엔 경쟁력 있는 가격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음
 - * 현지 생산 품목(당뇨, 코로나19 테스트, 당뇨 등) 이외의 기타 질병 진단키트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 복합 검사 가능 진단 키트 등이 현지 진출 유망
- (High-Tech 의료기기) 아르헨티나 경제부 자료('22.05.)에 따르면 현지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대부분 미디움 테크(Medium-Tech) 제품으로 인큐베이터, 일반 진단장비, 임플란트 등임
- 또한, 의료기기 생산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이테크(High-Tech) 의료기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지에서 생산/유통되는 유방촬영기(Mammography)의 경우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디지털화된 국내 기업 D사의 제품이 현지 바이어의 이목을 끌었으며, 수입을 위한 제품 등록 과정을 진행 중에 있음

● (경쟁력)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상당수가 디지털 기술 등이 적용된 하이테크(High-Tech) 제품이 많음

- 보편적인 제품이 아닌 기술력을 접목시킨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의료기기 완제품에 비해 비교적 원활하게 수입 과정 진행 가능

● (진출방법) 현지 인증 취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진출 전략 수립

- 아르헨티나 국립식품의약품청(ANMAT) 인증은 국산품 보호정책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여, 취득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
- 한편, 제품 등록/인증 시 현지 에이전트 혹은 파트너가 필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갈 경험 많은 파트너 발굴 필요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전력 기자재	선정 사유	현지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등으로 전력산업 공공조달 수요가 성장하면서 관련 기자재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
	시장 동향	전력 기자재의 경우, 대부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에이전트는 공급업체 견적을 확인한 뒤 입찰 참가 진행. 에이전트가 여러 공급업체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 국내 기업 제품이 단순 가격 경쟁에서 밀려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경쟁 동향	중국, 일본 및 브라질 제품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입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브라질 제품의 경우, 특히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인한 유리한 관세 및 물류 측면에서 제품 조달이 편리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진출방안	대부분 입찰로 구매가 진행되는 품목으로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함. 또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품질경쟁력 또는 차별화된 파이낸싱 제공 등을 통한 시장 공략 필요
품목명 2		
일반기계	선정 사유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을 기반으로 중간재/자본재 수입을 장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기계류 등 자본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 동향	현지 기업들의 자본재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22.09.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자본재 수입 14.5%, 자본재 부분품 35.5% 증가).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품 대체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현지 제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경쟁 동향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많아 가격 경쟁 및 품질 경쟁이 높은 품목 중 하나.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진출방안	일반기계의 경우 자본재로 제품 가격대가 높아 수입자의 부담이 큰 편으로 국내 기업에서 적정 파이낸싱 제공이 가능하다면 구매에 결정적으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 3		
자동차 산업 자동화 시설 (자동 컨베이어, 로봇 등)	선정 사유	현지 진출 자동차 OEM(GM, VW, FORD 등)에서 4차 산업(자동화 설비)에 투자 중으로 생산 자동화 시스템, 자동 컨베이어 벨트, 로봇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 동향	자동차 산업 장려정책 시행(2022년 9월) 및 현지 OEM(GM, VW, FORD, RENAULT 등)의 신규 모델(SUV, PICK UP) 생산 라인 추가 등으로 자동차 산업 생산시설 관련 투자 확대. 또한, 아르헨티나/브라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점차 생산량 회복세 전환 및 자동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경쟁 동향	자동차 시설의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설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또한,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다른 품목보다 높아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reference 등을 고려해 주요 공급업체들과 진행하는 경향이 뚜렷
	진출방안	미국, 유럽 등지에서 OEM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레퍼런스(reference)를 활용해서 접근하면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음.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 현대차 납품 이력도 어필(appeal)이 가능하므로 활용 필요. 현지 주요 공급업체(TIER 1, 2)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진출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음
품목명 4		
중간재	선정 사유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현지 제조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요 증가 추세
	시장 동향	중간재의 경우 '22년 8월 기준 수입액이 전년 대비 27.4% 증가했으며, '23년 에도 증가 추세 유지할 전망
	경쟁 동향	중국,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유지보수 지원 체계 구축 필수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주요 제조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 모듈 및 키트의 형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접근 방식 고민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자동차 설비 서비스	선정 사유	아르헨티나 주요 자동차 생산 OEM, 1 티어들이 현재 생산시설에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자동차 설비 설치 및 사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시장 동향	자동차 산업 장려정책 시행(2022년 9월) 및 현지 제조기업(GM, VW, FORD, RENAULT 등)의 신규 모델(SUV, PICK UP) 생산 라인 증설 등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확대. RENAULT의 경우 현재 생산시설 설비 완공하여 하루 약 280대 생산 진행 중. 자동화설비의 경우 지속적인 컨트롤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관련 유지보수 서비스 수요 상존
	경쟁 동향	자동차 설비 유지보수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어필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서비스 품질이 매우 중요함. 또한, 현지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특정 기업들이 존재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운 실정
	진출방안	대부분 프로젝트를 시공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진입 모색 필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려우므로 관련 에이전트, 하청업체 등과 협력 방안 마련
품목명 2		
마켓 플레임스(상거래 플랫폼) 구축 서비스	선정 사유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상호 이득이 되는 가격 제시 등이 가능한 플랫폼임. 급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으며 기존 시장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좋은 대안이 되었고, 인터넷 사용 인구 증가와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
	시장 동향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현재 주요 SNS(Facebook, Instagram 등)에서도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임. 소비자와 구매자가 한눈에 보인다는 점 등으로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된 SNS 기반 마켓플레이스는 대부분 소비재 위주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경쟁 동향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일반 소비재는 SNS 플랫폼 점유율이 매우 높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아닌 이상 진입이 어려운 상태. 또한, 현지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이 IT 계열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임
	진출방안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재 위주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기업 간 마켓플레이스(B2B) 구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현지 시장 진입에 유리할 전망. 예를 들어, 물류산업 중 개인 트럭 운전수와 현지 운송 수요를 연결하는 서비스, 에듀케이션 서비스(온라인 강좌 혹은 교수와의 연결 서비스) 등의 마켓플레이스 구축이 일반 소비재 마켓플레이스 구축보다 현지 진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

품목명 3		
K-Pop 콘텐츠 서비스	선정 사유	K-CULTURE의 현지 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K-POP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
	시장 동향	현재 아르헨티나는 한국문화원, 한인회 등을 통해 K-MOVIE, K-FOOD 등 한국 문화가 소개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K-POP은 여러 아이돌 그룹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인기가 매우 높으며, K-POP 댄스(Choreography) 대회도 개최되는 등 아르헨티나의 한국 콘텐츠 소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경쟁 동향	한국 문화와 중국 및 일본 등의 아시안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려가 될 만큼 경쟁이 크지 않음. 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적재산권(라이선스 등)에 대한 개념이 미비하여 무분별한 비공식 소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에이전트 선정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시급
	진출방안	콘텐츠 사업의 경우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 공연 서비스나 이벤트성 라이브 방송 진행, 라이선스 판매를 통한 현지 머천다이즈 제품 제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 및 추진 가능
품목명 4		
모바일 의료산업	선정 사유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정보 데이터화 필요로 인해 시장 형성. 원격의료 플랫폼이 일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나 아직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님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 번	구 분	사업명	시기/장소
1	마케팅	- 우루과이(관할지) 이동 무역관 운영 * 주요 소비자, 산업재 수입·유통업체 초청 상담회 개최 (방문상담 병행)	1분기/몬테비데오
2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시행 * 신규 판로 개척, 세일즈랩 운영 지원	1분기~ /부에노스아이레스
3		2022 경기북부 무역사절단(온라인) *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주최 (10개 사 내외 규모)	4월/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등
4		- 유망 소비자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 프리미엄 소비자 현지 유통망 진입 지원	2~4분기/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5		- 충남 중남미 무역사절단 * 충청남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충남) 파견 (10개 사 내외 규모)	10월/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6		- 의료바이오 시장 토탈 패키지 사업 * 의료기기·의약품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 Expo Medical(9월) KOTRA 부스 참가 * 상파울루(Hospitalar)와 협업 추진	연중/몬테비데오,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7		-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GP 사업 * OEM/Tier 1, 2 핀포인트 상담회 * 주요 수입·유통업체 파트너링 상담회 * 상파울루(AUTOMEC)와 협업 추진	연중/몬테비데오,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상파울루
8	ESG+	- 글로벌 ESG+ 사업 추진 * 지사화 기업 등과 기술학교 등 개최	2~3분기 중/부에노스아이레스
9	프로젝트 (그린에너지)	- 아르헨티나 폐기물 관리개선 기술자문 * KEITI, 환경지속가능개발부 등 협력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
10		- 우루과이 폐기물/오수처리 기술협력 지원 * 몬테비데오시, 말도나도시 등 협력	연중/몬테비데오, 말도나도
11	프로젝트 (공공조달)	- 공공조달 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 통신기자재 국영통신사 등 납품 지원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
12	콘텐츠	- 한국 콘텐츠 도입 및 공동 개발 등 협력 지원 *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웹툰 등 유망 콘텐츠 * KOCCA, BA 주정부 등 협업 추진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
13	투자 진출 지원	- 현지 투자 진출(P사 동반 진출) 기업 지원 * 원부자재 소싱, 현지 전문가 연계 등	연중/살타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예비선거 (PASO)	2023.8.13.(일)	
아르헨티나 대선	2023.10.22.(일)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아르헨티나 농업전시회 (EXPOAGRO ARGENTINA)	2023.4.12.~4.14.	
부에노스아이레스 전력 기자재 전시회 (BIEL LIGHT + BUILDING BUENOS AIRES)	2023.4.25.~4.27.	격년 개최
아르헨티나 광업 전시회 (ARMINERA)	2023.5.22.~5.24.	격년 개최
아르헨티나 건축 전시회 (BATIMAT EXPOVIVIENDA)	2023.6.28.~7.2.	
아르헨티나 의료 전시회 (EXPO MEDICAL)	2023.9월(미정)	
아르헨티나 일반 기계, 기자재 전시회 (EXPO FERRETERA)	2023.9.6.~9.8.	
아르헨티나 용기 전시회 (ENVASE ALIMENTEK)	2023.10.3.~10.6.	격년 개최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정상	관장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54 11 4313 0736	kulshock@kotra.or.kr
2	김주희	대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54 11 4313 0746	juhee@kotra.or.kr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